

나는 순수했다!: 아동기에 대한 자서전적 기억과 친사회적 행동

Autobiographical Memory of Childhood and Prosocial Behaviors

신홍임[†]

Hong Im Shin

Abstract

Previous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childhood memories can impact self-concepts. However, scant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and how the activation of childhood memories relates to the motivation of prosocial behaviors. Thus,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childhood memories facilitated prosocial behaviors through implicitly activating moral purity and how differently an abstract (vs. a concrete) construal level of autobiographical memories evoke prosocial inten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tudy 1, the participants in the experimental condition of childhood memories were more motivated to perform prosocial behaviors than those in the controlled condition of recalling recent mundane activities. In the experimental condition, moral purity was activated more strongly than in the control condition. Study 2 demonstrated that participants in the “concrete” condition of childhood memories tended to the lower levels of prosocial motivation than those in the “abstract” condition wherein they were counting and describing good deeds from their childhood in detail. These results indicate that different construal levels (abstract vs. concrete) can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memories and prosocial behaviors. This study contributes to extending previous research regarding the determinants of motivating prosocial behaviors in cognitive processes.

Key words: Childhood, Autobiographical Memory, Moral Purity, Construal Level, Moral License, Prosocial Behaviors

요약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아동기에 대한 자서전적 기억이 한 개인의 자기개념에 영향을 끼침을 보고하였다. 반면, 아동기 경험의 회상방식이 성인기의 친사회적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대한 자서전적 기억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해석수준에 따라 분석하려 한다. 연구 1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기 또는 최근 일상의 경험을 회상하는 조건에서 다양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기화가 달라지는지를 비교하였다. 연구 2에서는 아동기 경험을 추상적 또는 구체적으로 회상하는 방식이 해석수준의 차이를 통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연구 1에서는 아동기의 경험을 회상하는 조건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구참가자들은 아동기의 경험을 회상하는 조건에서 최근 일상을 회상하는 조건보다 자신의 도덕적 순수함에 대해 더 높게 평정하였다. 연구 2에서는 아동기의 도움행동을 구체적으로 회상하는 조건에서 아동기의 경험을 추상적으로 회상하는 조건보다 향후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가 감소됨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아동기의 경험에 대한 해석수준(추상적 vs. 구체적)과 도덕적 면허의 감정이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 개인의 친사회적 행동과 연관된 인지과정의 변인을 탐색하여 선행연구를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아동기, 자서전적 기억, 도덕적 순수함, 해석수준, 도덕적 면허, 친사회적 행동

[†] (교신저자) 신홍임: 순천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부교수 / E-mail: shin7038@scnu.ac.kr / TEL: 061-750-3809

1. 서론

우리는 가끔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득을 따지지 않고, 타인을 위한 선행을 하게 된다. 낮은 사람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거나, 바쁜 중에도 길을 가르쳐주는 즉흥적 선행뿐만 아니라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낼 수도 있다. 한 정치인은 자신의 검사 시절에 그 당시 정치범들에게 행해지던 가혹한 고문을 중지시키고, 포승줄을 풀어주었으며, 음식을 제공하였다고 자세하게 회고하였다(Kim, 2020). 또한 어떤 대학생은 자신이 초등학교의 체육시간에 달리기를 못하던 친구를 위해 같이 보조를 맞추어 늦게 달렸으며, 그 친구가 자신을 향해 활짝 웃던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회상하였다¹⁾. 이렇게 자신이 과거에 행한, 선한 행동을 기억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현재에도 증가시키게 될까? 자신의 선한 행동을 회상하는 것은 한 개인이 자신을 도덕적 인간으로서 인식하게 하여 도덕적 정체감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Reed, Aquino, & Levy, 2007). 이것은 한 개인에게 자신의 도덕적 정체감을 일관적으로 유지시키고자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동기화시킬 수 있다. 반면, 최근 연구(Kang, 2017)에 의하면, 자신의 과거 선행을 기억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도덕성을 인식하게 하고, 이미 선한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생각때문에 향후 친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과거에 살아온 기억을 회상하는 과정이 한 인간에게 자신의 도덕성을 인식하게 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동기화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서전적 기억과 도덕적 자기개념

자서전적 기억(autobiographical memory)은 한 개인

1) 연구 2에 참가하였던 대학생이 아동기에 대한 작문과제에서 작성한 내용을 발췌하였다.

의 과거 사건과 경험에 대한 회상의 복합체다(Baddeley, 1995). 자서전적 기억에는 두 가지 커다란 의미가 있다. 첫째, 한 개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자기개념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 내적 측면에서 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하다(Brewer, 1986). 둘째, 자서전적 기억은 개인 외적측면에서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해 중요하다(Bauer et al., 2003). 우리는 우리의 과거 기억을 말하고, 상대방의 과거경험을 함께 공유하면서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시작하고, 확립시킨다.

지금까지 자서전적 기억에 대한 연구(Conway, 1990; Conway & Rubin, 1993)는 주로 자서전적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고, 기억의 정확성에서 개인차에 집중하여 수행되었다. 선행연구(Bartlett, 1932; Conway, 2005)에서는 기억이 실제 현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활성화되는, 개인의 동기(예: 의도, 편견)에 의해서도 자주 오류가 발생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자서전적 기억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 개인이 자신을 보는 관점에 의해서도 자서전적 기억이 영향을 받게 됨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Fazio, Effrein과 Falender(1981)의 연구에서는 참가자가 자신이 과거에 사람들과 어울려 외향적으로 지냈던 시간에 대해 회상하는 조건에서 자신이 내향적으로 지냈던 시기를 회상하는 조건보다, 자신의 성격을 더 외향적이었던 것으로 회상하였다. 이와 비슷한 결과가 자존감(Jones et al., 1981)에서도 나타났다. Jones 등(1981)에서는 자존감이 높았던 시기를 회상하는 조건에서 자존감이 낮았던 시기를 회상하는 조건보다 연구참가자가 자신의 자존감을 더 높게 평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서전적 기억과 자기개념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한 개인의 과거에 대한 회상방식이 자기개념에 영향을 끼침을 보여주었다. 자서전적 기억과 도덕적 자기개념의 관계에 대해 수행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지만, 최근 몇몇 연구들에서는 자서전적 기억이 한 개인이 자신을 도덕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도덕적 자기개념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자서전적 기억은 자기개념의 도덕적 측면에서 자기고양(self-enhancement)이나 자기방어(self-protection)의 역할을 자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Alicke와 Sedikes(2009)의 연구에서는 연구참가자들이 자기 자신의 도덕성을 타인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가끔 도덕적으로 위반되는 행동을 하게 되지만, 자신 스스로를 대체로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자신이 과거에 행한 도덕적 위반을 망각하고, 과거의 선행을 기억하여 도덕적으로 긍정적 자기개념을 유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것은 한 개인이 자신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순수한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인식하는데, 과거에 대한 회상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준다.

주목할 것은 한 개인이 스스로 느끼는 도덕적 순수성이 현재 시점에서 특정 상황으로부터 제시되는 단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접화(priming)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한 개인의 마음상태가 다양한 상황적 자극에 의해 유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Bargh, Chen과 Burrows(1996)는 외부 환경에서 제시되는 작은 자극(예: 단어, 사진)도 이와 의미적으로 연관된 특정한 마음상태를 활성화시켜, 행동에 무의식적인 영향을 끼침을 보여주었다. Bargh 등은 연구참가자에게 노인관련 단어를 보여주면, 참가자들의 행동이 느려짐을 관찰하였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노인관련 단어가 이와 연관된 노인 고정관념을 자동적으로 활성화시킨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특정 단서를 통해 아동기의 경험을 회상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 아동기와 연관된 개념(예: 순수함)을 활성화시키고(James et al., 1998; Gino & Desai, 2012), 이와 의미적으로 연관된 도덕적 자기개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다면 한 개인의 마음속에 아동기의 개념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기화를 촉진시킬 것인가? 예를 들어, Gino와 Desai(2012)의 연구에서는 작문과제를 통해 아동기의 행복했던 경험을 회상하게 하거나, 또는 고등학교 시절의 즐거웠던 일상의 경험을 회상하게 한 후 친사회적 행동의 의향(예: 재난피해성금 후원)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의 경험을 회상하는 조건에서는 고등학교 시절의 경험을 회상하는 조건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의 동기화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회상조건에서는 자신을 도덕

적으로 순수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고등학교 회상조건보다 더 높았다. 연구자들은 이 두 조건에서 모두 긍정적 정서상태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기의 조건에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기화가 증가한 것은 아동기의 경험에 대한 회상이 자기개념의 도덕적 순수함과 연관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²⁾. 또한 이 연구에서는 문장완성과제를 통해 도덕적 순수함의 개념을 활성화시키면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가 더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아동기의 개념이 자기개념의 도덕적 순수함을 활성화시키고, 도덕적 자기개념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할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2.2. 해석수준과 친사회적 행동

위에서 기술한 Gino와 Desai(2012)의 연구는 아동기에 대한 자서전적 기억이 자기개념의 도덕성과 연관되어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 언제나 일관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될 것인가? 자서전적 기억의 표상은 상황적 특성에 따라 정보처리의 수준에서 달라질 수 있으며, 해석수준의 차이는 친사회적 행동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Conway & Peetz, 2012).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 Trope & Liberman, 2003)에 의하면,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개념은 높은 수준에서 추상적으로 표상되고, 시간적으로 가까운 개념은 낮은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표상된다. 예를 들어, 아동기에 대한 자서전적 기억은 최근 일상에 대한 기억보다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에서 추상적으로 표상된다. 선행연구(예:

2) Aknin, Vondervoort와 Hmalin(2018)의 연구에서는 즐거웠던 경험을 회상하게 하면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연구참가자에게 도움행동을 하게 하면, 긍정적 정서가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긍정 정서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가 원인/결과로서 서로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이 회상방식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려 하기 때문에 연구 1과 연구 2에의 모든 조건에서 연구참가자에게 즐거웠던 경험을 떠올리게 하여, 동일한 정서상태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유도한 후, 회상방식을 달리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의향을 측정하였다.

Agerström & Björklund, 2009; Conway & Peetz, 2012; Ko & Kim, 2019)에서는 이러한 해석수준의 차이가 정보처리과정에서 주의(attention)의 방향에 영향을 끼침을 보고하였다. 주의의 방향은 한 개인의 자기개념, 추구하는 목표 또는 가치와 연관되어 개인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Conway와 Peetz (2012)에서 연구참가자에게 일 년 전에 자신이 행한 선한 행동을 기술하게 하면, 친사회적 행동(예: 자원봉사 활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신의 최근 선한 행동을 작성하게 하면 향후 친사회적 행동을 하겠다는 의향이 감소했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시간적으로 먼, 일 년 전의 사건은 추상적으로 표상되고, 전반적 자기개념에 주의가 가도록 하는 반면, 시간적으로 가까운 일상의 사건은 구체적으로 표상되며, 한 개인이 지향하는 가치보다는 현재 상황의 특성이나 행동의 세부사항에 주의를 가게 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해석수준에 따른 이러한 주의의 차이는 연구참가자에게 친사회적 행동 또는 자기중심적인 다른 대안적 행동을 동기화할 수 있다. 연구참가자가 도덕적 가치 또는 장기목표에 초점을 두게 되면, 도덕적 자기에 도달하기 위해 아직도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친사회적 동기화(예: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타인을 위한 선행을 더 많이 해야 한다)가 증가될 수 있다. 반면, 연구참가자가 도덕적 자기개념보다는 자신이 수행한 친사회적 행동의 세부 특성에 더 집중하게 되면, 자신이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이미 충분히 수행했다는 인식을 단기적으로 갖게 되어(예: 나는 이미 충분히 타인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자신이 충분히 도덕적 선행을 베풀었다는 도덕적 면허(moral license)는 심리적 면허의 한 유형으로서 사회적 이미지의 손상을 걱정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할 자격이 있다는 인식이다(Miller & Effron, 2010). 따라서 Gino와 Desai(2012)의 연구에서처럼 자신의 어린 시절을 추상적으로 회상하는 것과 Conway와 Peetz(2012)의 최근 선행에 대한 구체적 회상은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두 가지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자신의 과거에 대한 추상적/구

체적 회상방식이 해석수준의 차이를 유발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차별화된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려 한다.

2.3. 자서전적 기억의 해석수준과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은 자신이 타인을 위해 베푼 도움행동의 이득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동기화되는 행동이다(Nowak & Sigmund, 2000). 상황에 따라 선한 사람이 갑자기 악한 사람으로 돌변할 가능성은 적지만, 한 개인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기화 정도는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상황에서 유도되는 순수함의 정서, 도덕적 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순수함의 개념이 활성화되면, 연구참가자가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커졌으며, 연구참가자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실험에서 지시를 하면, 손을 씻으려는 행동이 증가하여 순수함을 지키려는 행동이 늘어났다(Zhong & Liljenquist, 2006).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순수함의 개념이 마음에서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되면, 도덕성의 목표가 자동적으로 추구되어, 친사회적 행동이 동기화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반면 연구참가자에게 여성편견이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글을 작성하게 하면, 자신이 행한 도덕적 행동에 대한 지각은 미래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기화 정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Monin & Miller, 2001). 또한 자신의 최근 선한 행동을 기술하는 조건에서는 일상의 평범한 사건을 기술하는 통제조건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적게 나타났다(Jordan et al., 2011). 이러한 결과는 한 개인의 마음속에 순수함이나 도덕성의 개념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에 따라 미래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기화가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이 자신의 도덕적 순수함을 느끼는 정도와 도덕적 행동에 대한 해석수준에 따라 미래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기화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려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다. 첫째, Gino와 Desai(2012)에서는 아동기의 개념이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시킨다고 보고한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가자가 작문과제를 통해 자신의 아동기 경험을 회상할 때, 회상방식에 따라 달라지

는 정보처리의 수준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분석하려 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수행되지 않았으며, 아동기의 기억과 친사회적 관계를 검증한 Gino와 Desai(2012)의 연구에서는 추상적/구체적 해석수준을 구분하여 연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Gino와 Desai(2012)를 확장하여 추상적/구체적 해석수준의 차이가 한 개인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를 검증하려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Aydinli et al., 2014; Einolf, 2008)를 토대로 친사회적 행동을 공식적/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으로 구분하려 한다. 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은 헌혈과 같이 도움행동의 주체가 도움행동의 수혜자를 모르지만, 한 개인이 인지적 및 계획적으로 동기화되는 도움행동이다. 반면, 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은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와 같이 도움행동의 주체가 어려움에 처한 도움행동의 수혜자를 실제 현장에서 지각하여 즉흥적, 정서적으로 동기화되는 행동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는 것은 도움행동의 수혜자를 모르지만, 필요성을 인식하여 인지적으로 동기화되기 때문에 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이다. 이에 비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준다면, 이것은 계획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길을 몰라서 당황해하는 상황을 인식하여 즉흥적으로 동기화되기 때문에 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이다.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예: Conway & Pectz, 2012; Gino & Desai, 2012)에서는 대체로 친사회적 행동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차원으로 묶어서 측정하였으나, 친사회적 행동의 유형을 세분화하는 것은 행동을 동기화하는 변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험 상황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어떤 도움행동의 유형에 특히 어느 변인이 효과적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다음의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친사회적 행동을 구분한 연구가 거의 드물다. 예를 들어, Einolf(2008)의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이 높은 개인일수록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상대방을 인식하고, 도움행동을 즉각적으로 결정하는 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에 동기화되는 정도가 높음을 보고하였다. 반면 공감능력의 개인차는 도움행동의 수혜자를 실제로 모르지만, 필요성을 인식하여 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을

동기화하는 정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Aydinli 등(2014)에서는 도덕성이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될 때, 비공식적 도움행동이 더 잘 동기화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Fujita와 Han(2009)은 구체적 해석수준이 주로 의식적 정보처리에 영향을 끼치는데 비해, 추상적 해석수준은 의식적 정보처리뿐만 아니라 무의식적, 자동적 정보처리에도 영향을 끼침을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친사회적 행동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이 동기화변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석수준에 따른 정보처리의 차이는 공식적/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에 차별화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추상적으로 회고하는 것은 지하철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대방을 보고, 즉각적으로 자리양보를 하도록 동기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자신의 선한 행동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회상하는 것은 이미 충분히 도덕적으로 베풀었다는 느낌을 의식으로 갖게 하여 현재의 즉각적인 도움행동을 동기화하는데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도덕적 자기개념의 무의식적 활성화, 해석수준의 차이와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공식적/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검증하려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에 대한 자서전적 기억은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에 영향을 끼치는가?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경험을 회상하는 조건에서 최근 일상의 경험을 회상하는 조건보다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가 더 높을 것을 예측한다.

둘째, 아동기에 대한 자서전적 기억은 도덕적 자기개념에 영향을 끼치는가?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경험을 회상하는 조건에서 최근 일상의 경험을 회상하는 조건보다 자신의 도덕적 순수함을 더 높게 평정할 것을 예측한다.

셋째, 아동기의 경험에 대한 해석수준의 차이는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에 차별화된 영향을 끼치는가?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경험을 추상적으로 회상하는 조

건에서 구체적으로 회상하는 조건보다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가 더 높을 것을 예측한다.

넷째, 아동기의 경험에 대한 회상은 특히 어떤 유형의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에 영향을 끼치는가?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자서전적 기억에 대한 추상적 표상 조건에서 구체적 표상조건보다 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가 더 높을 것을 예측한다.

3. 연구 1

3.1. 연구방법 및 절차

3.1.1. 참가자

4년제 대학교의 대학생 117명(평균연령 만 20.03세, 남 = 40명, 여 = 77명, 표준편차=2.02)이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참가모집에 지원하여 자발적으로 참가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은 무선적으로 2개의 집단에 배정되었다. 각 집단의 연령 및 성별분포는 다음과 같다: 아동기 경험 회상집단(총 58명, 남 = 25명, 평균 연령 만 19.30세), 최근 일상의 경험 회상집단(총 59명, 남 = 15명, 평균 연령 만 20.77세). 연구 참가에는 약 1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오천원 상당의 커피 기프트콘의 보상을 받았다.

3.1.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지를 기반으로 실시되었다. 참가자에게는 본 연구의 취지를 특정한 시간대와 연관되어 자주 하는 활동에 대한 짧은 글을 작성하는 연구로 소개하였다. 참가자는 우선 평상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과에 대해 다섯 문장 내외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 절차는 실험의 두 집단에서 모두 동일하게 시작하고,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참가자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후 참가자는 두 집단(아동기 경험 회상 vs. 최근 일상의 경험 회상)으로 나뉘어 열다섯 문장 이상을 작성하는 작문과제를 수행하였다³⁾. 작문과제는 아동기

와 연관된 개념(예: 순수성)을 마음속에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 사용한 절차였다. 아동기 경험을 회상하는 조건에서는 참가자에게 선행연구(Gino & Desai, 2012)의 지시문을 참고하여 아동기의 즐거웠던 경험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부록 1 참조). 반면 다른 조건에서는 최근 자신의 일상에서 즐거웠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작문과제가 완료되면, 참가자들은 현재의 기분상태에 대한 질문지(PANAS; Watson, Clark, & Tellegen, 1988)에 응답하였다. 현재의 기분상태를 측정된 이유는 두 집단에서 나타난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가 기분상태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하였다. 이 질문지에서는 참가자가 현재 10개의 긍정 정서(예: 활기있는, 흥분한)와 10개의 부정 정서(예: 두려운, 괴로운)를 어느 정도 경험하는지에 대해 7점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ANAS의 한국어판(Lee et al., 2003)을 사용하였다. Lee 등(2003)의 연구에서 부정정서의 내적 합치도(α)는 .87, 긍정정서의 내적 합치도(α)는 .84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정서의 내적 합치도(α)는 .84, 긍정정서의 내적 합치도(α)는 .79로 나타났다.

이후 참가자들은 도덕적 순수성에 대해 두 개의 문항(예: 나는 순수하다고 느낀다, 나는 도덕적으로 결백하다고 느낀다)에 9점 척도에서 응답하였다. 선행연구(Gino & Desai, 2012)의 내적 합치도는 .84였고, 본 연구에서는 .74로서 비교적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작점검을 위해 참가자들은 두 개의 질문에 9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였다(예: 나는 작문과제를 할 때, 어린 시절에 대해 많이 생각하였다, 작문과제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였다). 이 두 개 문항에서 내적 합치도는 .87로 나타났다.

활용하여 자동적 정보처리과정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한다(Custers & Aarts, 2010). 선행연구(Gino & Desai, 2012; Bargh et al., 2001)에서는 작문과제를 통해 특정 개념을 제시하면, 이 개념과 연관된 사고 및 정서가 유도되어 특정 마음상태(mind-set)가 활성화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아동기의 개념을 활성화시키는데 작문과제를 사용하여, 한 개인의 마음속에 이 시기와 연관된 사고 및 정서가 활성화되어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증하였다.

³⁾ 작문과제는 한 개인에게 제시되는 자극이 이와 의미적으로 연관된 일련의 개념을 활성화시키는 현상인 점화(priming)를

Table 1. Means and correlations between moral purity, positive/negative affect, and formal/informal prosocial behaviors (Study 1)

	Mean (SD)	Correlations				
		1	2	3	4	5
1. Moral purity	5.923 (1.177)		.132	-.113	.096	.272**
2. Positive affect	6.145 (1.475)			-.365**	.175	.177
3. Negative affect	4.495 (1.845)				-.074	.001
4. Formal prosocial behaviors	5.850 (1.689)					.489**
5. Informal prosocial behaviors	7.004 (1.354)					

Note: * $p < .05$, ** $p < .01$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참가자들에게 아홉 개의 다양한 친사회적 행동을 할 의향이 있는 정도를 9점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Einolf(2008)에 의하면 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은 불우이웃 성금내기, 공공 기관을 통한 자원봉사나 헌혈과 같이 한 개인이 도움행동의 수혜자를 모르지만, 필요성을 심사숙고하여, 사전에 도움행동에 대한 계획을 했을 때, 의식적으로 동기화되는 행동이다. 반면 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은 한 개인이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 우연한 기회로 어려움에 처한 상대방을 보았을 때, 정서적 및 즉흥적으로 동기화되는 행동이다. 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에서는 연구참가자에게 네 가지 행동(불우이웃돕기 캠페인 참여, 단체 자원봉사, 헌혈, 단체기부)에 대한 의향을 질문하였다. 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에서는 다섯 가지 행동(자리양보, 친구고민경청, 물건 빌려주기, 지인의 집 관리, 무거운 짐 들어주기)에 대한 의향을 측정하였다. 아홉 개의 친사회적 행동의 내적 합치도는 .54, 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의 내적 합치도는 .68, 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의 내적 합치도는 .77로 나타났다. 공식적/비공식적 유형별로 내적 합치도가 아홉 개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내적 합치도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공식적/비공식적 유형이 서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파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한 후, 연구를 종료하였다.

3.1.3. 연구설계

본 연구는 2(점화집단: 아동기의 경험, 최근 일상의 경험) x 2(친사회적 행동유형: 공식적, 비공식적)의 혼합설계로 구성되었다. 점화집단은 참가자간 변인이고, 친사회적 행동의 유형은 참가자내 변인⁴⁾이었다. 측정변인은 도덕적 순수함 및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였다.

3.1.4. 분석방법

연구 1에서는 아동기 경험의 회상 여부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PSS 18.0 통계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독립표본 t -검정 및 혼합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3.2. 연구결과 및 논의

3.2.1. 조작점검

본 연구에서는 작문과제를 통해 아동기의 경험을 떠올리는 조건과 최근의 일상 경험을 떠올리는 조건으로 조작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이 작문과제를 통해 아동기의 경험을 떠올린 정도를 아동기 경험 조건($M=7.52$, $SD=1.31$)과 최근의 경험을 떠올린 조건($M=4.46$, $SD=1.39$)에서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115)=7.42$, $p<.001$). 아동기 경험의 조건에서는 아동

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Einolf, 2008)를 참조하여 다양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참가자의 의향을 참가자내 변인으로 측정하였다. 참가자내 설계의 장점은 한 개인의 변화과정을 볼 수 있으며, 참가자 수가 충분히 많지 않을 때 활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의 경험을 최근 경험의 조건보다 더 많이 회상하였다. 따라서 작문과제를 통해 각 조건과 연관된 시기의 마음상태가 적절하게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3.2.2.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도덕적 순수성, 긍정/부정 정서 및 공식적/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주요 변인간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들이 자신을 도덕적으로 순수하다고 인식할수록 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기화정도가 높았다($r=.272, p=.003$). 반면 도덕적 순수함은 긍정 정서, 부정정서나 공식적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3.2.3. 도덕적 순수함

본 연구에서는 작문과제를 통해 아동기의 경험을 떠올리는 실험조건과 최근의 일상 경험을 떠올리는 조건에서 연구참가자가 자신에 대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도덕적 순수함에 대한 2개 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도덕적 순수함은 아동기 조건($M=6.14, SD=1.98$)에서 최근의 일상 조건($M=5.70, SD=1.57$)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115)=2.06, p=.041$).

3.2.4.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

아동기 경험 또는 최근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친사회적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에 속하는 네 가지 행동(불우 이웃돕기 캠페인 참여, 단체 자원봉사, 헌혈, 단체기부)과 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에 속하는 다섯 가지 행동(자리양보, 친구고민경청, 물건 빌려주기, 지인의 집 관리, 무거운 짐 들어주기)의 동기화정도를 유형별로 평균을 산출하였다. 표 2와 같이 2(점화: 아동기 경험, 최근 경험) X 2(친사회적 행동: 공식적, 비공식적)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을 참가자내 변인으로서 혼합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점화의 주효과가 유의했다($F(1, 115)=4.716, p=.032, \eta^2=.039$). 아동기 점화조건($M=6.69, SD=1.26$)에서는 최근 경험의 점화조건($M=6.16, SD=1.37$)보다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또한 친사회적 행동유형의 주효과가 유의했다($F(1, 115)=63.39, p=.000, \eta^2=.355$). 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M=7.01, SD=1.35$)는 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M=5.85, SD=1.68$)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점화집단과 친사회적 행동의 유형 간에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F(1, 115)=.513, p=.475, \eta^2=.01$).

각 조건별로 독립표본 t-검증을 수행한 결과, 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기화에서는 아동기 경험의 조건($M=5.77, SD=1.81$)과 최근 경험의 조건($M=5.62, SD=1.33$)간에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t(115)=.56, p=.60$). 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은 의식적 처리과정에 의해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아동기 점화와 같은 무의식적 처리과정에 의해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기화에서는 아동기 경험의 조건($M=7.50, SD=1.00$)과 최근 경험의 조건($M=6.98, SD=1.21$)의 차이가 유의하였다($t(115)=2.529, p=.013$). 따라서 아동기에 대한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무의식적, 즉흥적으로 동기화되는 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의 영향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2.5. 현재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아동기의 경험을 회상하는 조건과 최근 경험을 회상하는 조건에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 정서에서는 아동기 경험조건($M=6.36, SD=1.49$)과 최근 경험조건($M=5.93, SD=1.43$)에서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115)=1.586, p=.116$. 또한 부정적 정서에서도 아동기 경험조건($M=4.60, SD=1.23$)과 최근 경험조건($M=4.38, SD=1.86$)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t(115)=.624, p=.534$). 이 결과는 본 연구의 두 조건에서 모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상태에서 동일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두 조건에서 나타난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의 차이는 두 조건 간의 정서상태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한다.

요약하면, 연구 1에서는 아동기의 경험을 회상하는 조건과 최근 일상의 경험을 떠올리는 조건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

동기 회상의 조건에서는 최근 일상의 회상조건보다 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을 하겠다는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한 해석에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첫째, 아동기의 개념이 도덕적 순수함을 무의식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가 증가할 수 있다. 둘째, 아동기는 최근 일상보다 더 높은 해석수준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자기개념과 연관된 장기 목표를 더 많이 활성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2에서는 연구참가자가 아동기의 경험을 회상하도록 하였을 때, 추상적 회상조건(높은 해석수준)과 구체적 회상조건(낮은 해석수준)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려 한다. 아동기의 개념이 도덕적 순수함을 증가시켜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킨다면, 이 두 조건 모두 아동기를 점화시키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반면, 아동기의 경험을 어떻게 회상하는지에 따라 해석수준의 차이가 발생하여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에 영향을 끼친다면, 추상적 회상조건에서 구체적 회상조건보다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가 더 높을 것을 예측한다. 추상적 회상조건에서는 도덕적 정체감이라는 목표를 무의식적으로 갖게 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더 동기화하는데 비해, 구체적 회상조건에서는 자신이 이미 도덕적으로 충분히 많은 선행을 하였다는 느낌을 갖게 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동기화하는데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을 예측한다. 또한 이러한 회상방식의 차이는 무의식적, 즉흥적으로 동기화되는 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에서 의식적, 계획적으로 동기화되는 공식적 친사회적 행동보다 더 많이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Table 2. Mixed ANOVA of condition and Intentions of formal and informal prosocial behaviors (Study 1)

Source	SS	df	MS	F	p	η^2
Prosocial	77.99	1	77.99	63.39	.00***	.35
Prosocial *conditions	.63	1	.63	.513	.47	.01
Error	141.48	115	1.23			

*** $p < .001$, * $p < .05$

4. 연구 2

4.1. 연구방법 및 절차

4.1.1. 참가자

4년제 대학교의 대학생 70명(평균연령 만 23.02세, 남 = 25명, 여 = 45명, 표준편차=5.68)이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참가모집에 지원하여 자발적으로 참가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은 아동기 경험을 회상하는 방식에 따라 무선적으로 2개의 집단(추상적 표상 vs 구체적 표상)에 배정되었다. 각 집단의 연령 및 성별분포는 다음과 같다: 추상적 표상집단(총 34명, 남 = 15명, 평균연령 만 22.75세), 구체적 표상집단(총 36명, 남 = 9명, 평균 연령 만 23.56세). 연구 참가에는 약 1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오천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의 보상을 받았다.

4.1.2. 연구도구 및 절차

연구 2는 연구 1과 동일하게 온라인 설문지를 기반으로 실시되었다. 참가자는 우선 두 집단(추상적 표상 vs. 구체적 표상)으로 나뉘어 작문과제를 수행하였다. 연구 1과 유사하게 연구 2에서도 작문과제를 사용하여, 아동기의 경험과 연관된 사고 및 정서가 해석수준에서 차별화되어 행동의 동기화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2에서는 해석수준을 조작하기 위해 선행연구(Freitas et al., 2004; Fujita et al., 2006)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참가자들에게 지시하였다. 추상적 표상집단에서는 아동기에 즐거웠던 경험을 세 가지 이상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반면 아동기 경험의 구체적 표상 집단에서는 선행연구(Conway & Peetz, 2012; Tasimi & Young, 2016)를 참조하여 아동기에 자신이 자발적으로 어떤 이득을 기대하지 않고, 타인을 도와주며 즐거웠던 경험을 세 가지 이상 생생하게 세부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타인을 ‘어떻게(how)’ 도와주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도록 하였다. 선행연구(예: Freitas et al., 2004; Ko & Kim, 2019)에서는 행동의 이유와 목표에 주의가 가면, 추상적(높은) 해석수준에서 정보처리가 진행되는 데 비해, 행동의 수단에 초점을

Table 3. Means and correlations between moral purity, positive/negative affect, and formal/informal prosocial behaviors in the “abstract” condition (Study 2)

Variables	Mean (SD)	Correlations			
		2	3	4	5
1. Moral purity	5.965 (1.250)	.160	-.082	.247	.328*
2. Positive affect	6.227 (1.611)		-.634**	.200	.099
3. Negative affect	4.409 (2.480)			-.111	.170
4. Formal prosocial behaviors	5.697 (1.657)				.454**
5. Informal prosocial behaviors	6.250 (1.682)				

Note. * $p < .05$, ** $p < .01$

맞추면 구체적(낮은) 해석수준에서 정보처리가 진행됨을 보고하였다.

작문과제가 완료되면, 조작점검을 위해 참가자들에게 작문과제가 아동기 경험을 생각나게 한 정도를 9점 척도에 따라 2개의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예: 작문과제는 어린 시절을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였다, 작문과제를 통해 어린 시절의 추억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기억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연구 1과 동일하게 현재 기분상태(PANAS; Watson et al., 1988)에 대한 한국어판 질문지(Lee et al., 2003)에 응답하였다. 연구 2에서 긍정 정서의 내적 합치도는 .86, 부정 정서의 내적 합치도는 .91로 나타났다. 이후 참가자들은 도덕적 순수성에 대해 두 개의 문항(예: 나는 순수하다고 느낀다, 나는 도덕적으로 결백하다고 느낀다)에 9점 척도에서 응답하였다. 연구 2에서 내적 합치도는 .69로서 비교적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참가자들은 아홉 개의 다양한 친사회적 행동을 할의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9점 척도상에서 응답하였다. 이 문항은 연구 1과 동일하였다. 연구 2에서 아홉 개의 친사회적 행동의 내적 합치도는 .57, 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의 내적 합치도는 .68, 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의 내적 합치도는 .7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파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한 후, 연구를 종료하였다.

4.1.3. 연구설계

본 연구는 2(해석수준: 추상적, 구체적) x 2(친사회적 행동유형: 공식적, 비공식적)의 혼합설계로 구성되었

Table 4. Means and correlations between moral purity, positive/negative affect, and formal/informal prosocial behaviors in the “concrete” condition (Study 2)

Variables	Mean (SD)	Correlations			
		2	3	4	5
1. Moral purity	6.500 (1.334)	.149	-.175	.104	.190
2. Positive affect	5.923 (1.412)		-.548**	-.293	.180
3. Negative affect	4.884 (2.232)			.108	-.110
4. Formal prosocial behaviors	5.384 (1.246)				.352*
5. Informal prosocial behaviors	5.057 (1.437)				

Note. * $p < .05$, ** $p < .01$

다. 참가자간 변인은 해석수준이고, 참가자내변인은 친사회적 행동의 유형이었다. 측정변인은 도덕적 순수함 및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였다.

4.1.4. 분석방법

연구 2에서는 아동기 경험에 대한 해석수준 및 친사회적 행동의 유형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PSS 18.0 통계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독립표본 t-검정 및 혼합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4.2. 연구결과 및 논의

4.2.1. 조작점검

연구 2에서는 작문과제를 통해 아동기의 즐거웠던 경험을 세 가지 이상 추상적으로 회상하는 조건과 아동기에 친사회적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세 개 이상 구체적으로 회상하는 조건으로 조작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이 작문과제를 통해 아동기의 경험을 기억한 정도는 구체적 회상집단(M=7.15, SD=1.31)과 추상적 회상집단(M=6.83, SD=1.39)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68)=.666, p=.564$). 반면, 아동기의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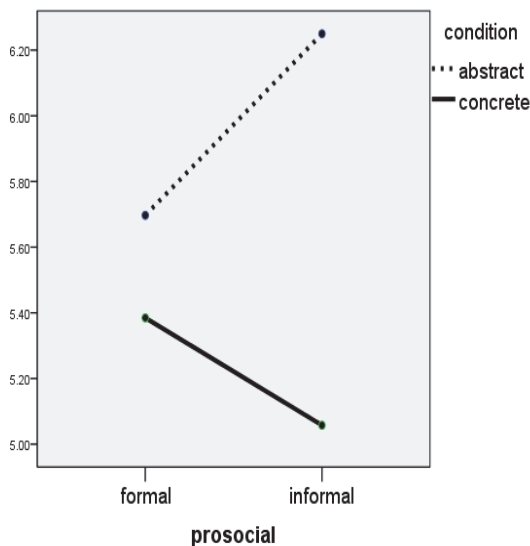


Fig. 1. Graphed interactions of intentions for formal/informal prosocial behaviors in the abstract and in the concrete condition (Study 2)

Table 5. Mixed ANOVA of condition and Intentions of formal and informal prosocial behaviors (Study 2)

Source	SS	df	MS	F	p	η^2
Prosocial	.417	1	.417	.299	.586	.004
Condition	18.497	1	18.497	5.342	.024	.073
Prosocial *conditions	6.329	1	6.329	4.532	.037	.062
Error	94.963	68	1.397			

*** $p < .001$, * $p < .05$

행동에 대한 세부적 사실을 더 정확하게 기억한 정도는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 회상집단(M=6.70, SD=1.48)은 추상적 회상집단(M=5.18, SD=1.36)보다 더 정확하게 세부사실을 기억하였다고 응답하였다($t(68)=4.262, p<.001$). 이에 따라 구체적 회상집단에서 추상적 회상집단보다 아동기 경험이 더 낮은 해석수준에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4.2.2.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표 3과 같이 아동기의 도움행동을 추상적으로 회상한 조건에서 도덕적 순수함, 긍정·부정 정서 및 공식적/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들이 경험한 도덕적 순수함은 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328, p=.030$). 반면 표 4와 같이 구체적 회상조건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신을 도덕적으로 순수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와 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기화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r=.104, p=.310$). 또한 도덕적 순수함은 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r=.190, p=.115$). 이 결과는 추상적 회상조건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신을 도덕적으로 순수하다고 인식할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지만, 구체적 회상조건에서는 참가자들의 도덕적 순수함과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가 서로 관계없음을 보여준다.

4.2.3. 도덕적 순수함

연구 2에서 참가자들이 아동기에 타인을 도왔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조건에서 아동기의 경험을

추상적으로 떠올렸던 조건보다 자신의 도덕적 순수함을 더 높게 평정하였다. 연구참가자가 자신에 대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도덕적 순수함에 대한 2개 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였을 때, 도덕적 순수함은 구체적 회상 집단($M=6.64$, $SD=1.30$)에서 추상적 회상집단($M=5.96$, $SD=1.2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68)=2.12$, $p=.037$). 따라서 자신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구체적 회상은 추상적 회상보다 자신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순수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2.4.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

해석수준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정도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 1과 동일하게 공식적/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의 유형별로 평균을 산출하였다. 해석수준을 참가자간 변인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참가자내 변인으로서 2(해석수준: 추상적, 구체적) X 2(친사회적 행동유형: 공식적, 비공식적)의 혼합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 5와 같이 해석수준의 주효과가 유의했다($F(1, 68)=5.342$, $p=.024$, $\eta^2=.073$). 추상적 해석수준($M=5.97$, $SD=1.42$)에서는 구체적 해석수준($M=5.22$, $SD=1.10$)보다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가 전반적으로 더 높았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예측했던 대로 도덕적 면허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기에 자신이 수행한 친사회적 행동을 구체적으로 회상하는 것은 자신을 도덕적으로 더 순수하게 인식하게 하여,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를 감소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주목할 것은 해석수준과 친사회적 행동의 유형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던 것이다($F(1, 68)=4.532$, $p=.037$, $\eta^2=.062$). 그림 1과 같이 추상적 표상조건에서는 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정도($M=6.25$, $SD=1.65$)가 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정도($M=5.69$, $SD=1.68$)보다 더 높았다($t(33)=2.102$, $p=.041$). 반면 구체적 표상조건에서는 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정도($M=5.38$, $SD=1.24$)와 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정도($M=5.05$, $SD=1.43$)의 차이가 유의하

지 않았다($t(35)=1.086$, $p=.288$). 이 결과는 추상적 표상 조건에서는 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이 더 잘 동기화되었지만, 구체적 표상에서는 공식적/비공식적 유형에 따라 동기화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동기의 즐거운 경험을 추상적으로 회상하는 것은 도덕성의 목표를 무의식적으로 활성화시켜, 향후 실제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즉흥적, 정서적으로 도움행동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자신의 선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내는 것은 이미 충분히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느낌을 의식적으로 갖게 하여 공식적/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의미있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친사회적 행동유형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1, 68) = .299$, $p = .586$, $\eta^2 = .004$). 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M = 5.58$, $SD = 1.51$)는 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M = 5.80$, $SD = 1.68$)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4.2.5. 현재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아동기의 경험을 추상적으로 회상하는 집단과 아동기의 친사회적 행동을 구체적으로 회상하는 집단에서 긍정/부정 정서에서 차이가 나타나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긍정 정서에서 추상적 표상조건($M=6.22$, $SD=1.62$)과 구체적 표상조건($M=5.86$, $SD=1.58$)을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68)=.885$, $p=.379$). 또한 부정정서에서도 추상적 표상집단($M=4.40$, $SD=2.48$)과구체적 표상집단($M=4.82$, $SD=2.28$)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t(68)=-.670$, $p=.50$). 이 두 조건에서 추상적/구체적 해석수준에 따라 긍정 정서 또는 부정 정서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서의 차이가 두 조건 간의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에 차별화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요약하면, 연구 2에서는 아동기의 친사회적 행동을 추상적 또는 구체적으로 회상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수준이 공식적/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

화에 차별화된 영향을 끼쳤다. 아동기 경험의 추상적 회상조건에서는 자신의 도움행동을 구체적으로 회상한 조건보다 무의식적으로 동기화되는 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을 하겠다는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의식적으로 동기화되는 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에서는 추상적 또는 구체적 회상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아동기의 경험을 어떻게 회상하는지는 친사회적 행동을 의식적으로 동기화하는 과정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동기화하는 의사결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기의 친사회적 행동을 추상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향후 도움이 필요한 타인을 실제 상황에서 만났을 때, 자신보다 먼저 배려하는 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를 증가시킬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대한 자서전적 기억이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1에서는 아동기의 경험을 떠올린 조건에서 최근 일상의 경험을 떠올린 조건보다 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기화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의 경험을 떠올리는 조건에서는 최근 경험의 조건보다 도덕적 순수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은 도덕적 순수함의 개념을 활성화시켜서, 타인을 배려하는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를 매개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연구 2에서는 아동기의 경험을 어떻게 회상하는지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가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예측했던 것과 같이 자신의 선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회상하는 조건에서는 아동기의 즐거웠던 경험을 추상적으로 회상하는 조건보다 도덕적 순수함을 인식하는 정도가 더 높았지만, 미래의 도움행동에 대한 동기화정도가 더 낮았다. 중요한 것은 추상적 회상조건에서는 연구참가자가 스스로 인식한

도덕적 순수함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가 증가했던 데 비해, 구체적 회상조건에서는 도덕적 순수함과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자신이 행한 선한 행동의 세부적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인식하게 하지만, 미래의 친사회적 행동과 연결될 가능성이 적을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James et al., 1998; Gino & Desai, 2012)에서는 아동기의 기억이 순수함이나 깨끗함과 같은 개념을 의미적으로 활성화시킴을 보고하였다. 연구 1의 결과에서도 아동기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면, 자신의 도덕적 순수성을 더 높게 평정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 결과는 특정 상황에서 제시되는 자극이 한 개인의 마음상태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 개인의 목표구조를 외부 환경의 설계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함의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회상하는 방식이 사회적 맥락에서 타인을 위한 도움행동의 동기화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연구 2에서 구체적 회상집단에서는 추상적 회상집단보다 아동기 경험의 세부 사실을 더 정확하게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도덕적으로 더 순수하게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자신의 선한 행동을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인식하게 하는 도덕적 면허의 감정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이제는 타인을 위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할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한 개인의 자서전적 기억이 추상적/구체적 회상방식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에 차별화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가자가 실제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도움행동을 어떻게 회상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해석에 한계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선한 행동과 타인의 선한 행동을 기억하는 것이 유사한 정도로 도덕적 면허의 감정을 유발하여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를 감소시키

너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양한 조건별로 사용하여, 참가자의 회상방식과 회상내용의 효과를 구분하여 검증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자서전적 기억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된 도덕적 순수성이 도움이 필요한 상대방을 지각하고, 즉흥적으로 동기화되는, 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움행동의 수혜자를 모르지만, 필요성을 심사숙고하면서, 의식적으로 동기화되는 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은 도덕적 순수성의 활성화에 의해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이 결과는 친사회적 행동이 다양한 변인에 의해 동기화되기 때문에 유형별로 구분하여 의미있는 변인을 세분화하여 탐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inolf(2008)는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기화를 인지적 및 정서적 과정으로 구분하고, 일상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친사회적 행동이 동기화되는 과정을 정교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가 인식하는 도덕적 순수함의 정도와 공식적/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였지만, 다양한 친사회적 행동이 인지적 또는 정서적으로 어떻게 동기화되는지에 대한 경로를 실제 상황에서 세분화하여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실험 상황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다양한 도움행동을 동기화하는 변인을 정교하게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에게 아동기 또는 최근 일상의 즐거운 경험을 떠올리게 한 후, 도덕적 순수성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두 조건 간에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사회적 행동을 동기화하는 것이 연구 참가자가 특정 조건에서 경험한 특정 정서에 의해 매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참가자에게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을 떠올리게 했을 때도 일관적으로 도덕적 순수성을 경험할 것인지를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을 회상하는 것이 친사회적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의향을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자기보고식 질문지에는 참가자가 사회적으로 긍정적 인상을 추구할수록 자신의 반응을 의식하여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할 때, 참가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수집할 수 있는 암묵적 검사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개인이 성장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의 구조인 자기개념을 발전시킬 때, 도덕적 자기개념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자신의 과거에 대한 다양한 기억을 재구성하면서, 자기개념을 일관되게 통합시킬 때,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은 자기고양을 위해 통합되지만, 과거에 행했던 비윤리적 행동은 긍정적 자기개념의 방어를 위해 망각된다. Grant와 Dutton(2012)은 친사회적 행동이 타인을 위해 베푸는 사람에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돌아올 이득을 의식적으로 계산하면서 동기화된다고보다는 자신이 선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스스로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강하게 느끼게 하기 때문에 동기화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지향적일뿐 아니라 자신의 긍정적 자기개념의 형성과 유지에도 매우 이롭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선한 행동에 대한 추상적 회상방식이 구체적 회상방식보다 도덕적 정체성을 일관적으로 유지하는데 더 유리함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과거 경험을 추상적으로 회상하는 방식은 자신이 살아가는 현재에서 더 많은 선한 행동을 하도록 이끌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베푼 선한 행동을 계산하며, 구체적으로 회상한다면, 이미 도덕성의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며, 선한 행동을 멈추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한다. 후속연구에서는 도덕적 정체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선한 행동을 추상적으로 기억하여 도덕적 자기개념을 확립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Aknin, L. B., Van de Vondervoort, J. W., & Hamlin, J. K. (2018). Positive feelings reward and promote prosocial behavior.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20, 55-59. DOI: 10.1016/j.copsyc.2017.08.017
- Alicke, M. D., & Sedikides, C. (2009). Self-enhancement and self-protection: What they are and what they do.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20(1), 1-48. DOI: 10.1080/10463280802613866
- Agerström, J., & Björklund, F. (2009). Moral concerns are greater for temporally distant events and are moderated by value strength. *Social Cognition*, 27, 261-282. DOI: 10.1521/soco.2009.27.2.261
- Aydinli, A., Bender, M., Chasiotis, A. et al. (2014). When does self-reported prosocial motivation predict helping? The moderating role of implicit prosocial motivation. *Motivation and Emotion*, 38, 645-658. DOI: 10.1007/s11031-014-9411-8
- Baddeley, A. (1995). Working memory. In M. S. Gazzaniga (Ed.), *The cognitive neurosciences* (pp. 755-764). Cambridge, MA: MIT Press.
- Barlett, F. C. (1932). *Remembering: A study in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gh, J. A., Chen, M., & Burrows, L. (1996). Automacity of social behavior: Direct effects of trait construct and stereotype priming on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2), 230-244.
- Bargh, J. A., Gollwitzer, P. M., Lee-Chai, A., Barndollar, K., & Tröschel, R. (2001). The automated will: Nonconscious activation and pursuit of behavioral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1014-1027.
- Brewer, W. F. (1986). What is autobiographical memory? In D. C. Rubin (Ed.), *Autobiographical memory* (pp. 25-49).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I: 10.1017/CBO9780511558313.006
- Conway, M. A. (1990). *Autobiographical memory: An introduction*. Buckingham, England: Open University Press.
- Conway, M. A., & Rubin, D. C. (1993). The structure of autobiographical memory. In A. E. Collins, S. E. Gathercole, M. A. Conway, & P. E. M. Morris (Eds.), *Theories of memory* (pp. 103-137). Hove, England: Erlbaum.
- Conway, P., & Peetz J. (2012). When does feeling moral actually make you a better person? Conceptual abstraction moderates whether past moral deeds motivate consistency or compensatory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7), 907-919. DOI: 10.1177/0146167212442394
- Custers, R., & Aarts, H. (2010). The unconscious will: How the pursuit of goals operates outside of conscious awareness. *Science*, 329(5987), 47-50.
- Dijksterhuis, A., & Bargh, J. A. (2001). The perception-behavior expressway: Automatic effects of social perception on social behavior.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3 (pp. 1-40). San Diego, CA: Academic Press. DOI: 10.1016/S0065-2601(01)80003-4
- Einolf, C. J. (2008). Empathic concern and prosocial behaviors: A test of experimental results using survey data. *Social Science Research*, 37(4), 1267-1279. DOI: 10.1016/j.ssresearch.2007.06.003
- Freitas, A. L., Gollwitzer, P., & Trope, Y. (2004). The influence of abstract and concrete mindsets on anticipating and guiding others' self-regulatory effor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6), 739-752. DOI: 10.1016/j.jesp.2004.04.00
- Fujita, K., & Han, H. A. (2009). Moving beyond deliberative control of impulses: The effect of construal levels on evaluative associations in self-control conflicts. *Psychological Science*, 20(7), 799-804. DOI: 10.1111/j.1467-9280.2009.02372.x
- Fujita, K., Trope, Y., Liberman, N., & Levin-Sagi, M.

- (2006). Construal levels and self-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3), 351-367. DOI: 10.1037/0022-3514.90.3.351
- Fazio, R. H., Effrein, E. A., & Falender, V. J. (1981). Self-perception following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2), 232-242. DOI: 10.1037/0022-3514.41.2.232
- Gino, F., & S. Desai. (2012). Memory lane and morality: How childhood memories promote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4), 743-758. DOI: 10.1037/a0026565
- Grant, A., & Dutton, J. (2012). Beneficiary or benefactor: Are people more prosocial when they reflect on receiving or giving? *Psychological Science*, 23(9), 1033-1039. DOI: 10.1177/0956797612439424
- Jones, E. E., Rhodewalt, E., Berglas, S., & Skelton, J. A. (1981). Effects of strategic self-presentation on subsequent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3), 407-421. DOI: 10.1037/0022-3514.41.3.407
- James, A., Jenks, C., & Prout, A. (1998). *Theorizing childhood*. Oxford, England: Blackwell.
- Kim, T. G. (2020). *한겨레 아카이브 프로젝트 시간의 극장: 한겨레신문*. Retrieved from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54252.html
- Ko, H., & Kim, S. (2019). Factors affecting intentions of reporting child abuse: The interaction between type of abuse, sex, and construal-level.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22(2), 3-16. DOI: 10.14695/KJSOS.2018.22.2.3
- Lee, H. H., Kim, E. J., & Lee, M. K. (2003). A validation study of Korea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The PANAS scal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4), 935-946.
- Miller, D. T., & Effron, D. A. (2010). Chapter three - psychological license: When it is needed and how it function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 115-155. DOI: 10.1016/S0065-2601(10)43003-8.
- Monin, B., & Miller, D. T. (2001). Moral credentials and the expression of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1), 33-43. DOI: 10.1037/0022-3514.81.1.33
- Park, J., Kim, J., & Yoon, Y. (2016). The Effects of perceived popularity on prosocial behavior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onnectivity and hierarchy in the peer relationship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8(1), 25-49. DOI: 10.15753/aje.2017.03.18.1.25
- Rees, H. R., Fujita, K., Han, H. A., Sherman, J. W., & Sklar, A. Y. (2018). An examination of the processes by which construal level affects the implicit evaluation of goal relevant stimuli. *Motivation Science*, 4(3), 251-261. DOI: 10.1037/mot0000089
- Reed, A., II, Aquino, K., & Levy, E. (2007). Moral identity and judgments of charitable behaviors. *Journal of Marketing*, 71, 178-193. DOI: 10.1509/jmkg.71.1.178.
- Sachdeva, S., Iliev, R., & Medin, D. L. (2009). Sinning saints and saintly sinners: The paradox of moral self-regulation. *Psychological Science*, 20(4), 523-528. DOI: 10.1111/j.1467-9280.2009.02326.x
- Stanley, M. L., Henne, P., Iyengar, V., Sinnott-Armstrong, W., & De Brigard, F. (2017). I'm not the person I used to be: The self and autobiographical memories of immoral ac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6(6), 884-895. DOI: 10.1037/xge0000317
- Stanley, M. L., & De Brigard, F. (2019). Moral memories and the belief in the good self.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8(4), 387-391. DOI: 10.1177/0963721419847990
- Tasimi, A., & Young, L. (2016). Memories of good deeds past: The reinforcing power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47, 159-166. DOI: 10.1016/j.jecp.2016.03.001

Trope, Y., & Liberman, N. (2003). Temporal construal.
Psychological Review, *110*(3), 403-421. DOI:
10.1037/0033-295X.110.3.403

원고접수: 2020.09.15

수정접수: 2020.11.24

게재확정: 2020.12.21.

부록 1. 작문과제 지시문

연구 1

1. 아동기 경험의 회상조건

우리는 가끔 어렸을 때 즐거웠던 경험을 떠올립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행복했던 경험에 대해 15-20개 문장 내외로 적어주십시오. 자신이 지금 쓴 글을 다른 사람이 읽는다면, 그때의 느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어린 시절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 최근 일상의 회상조건

우리는 가끔 최근 일상의 즐거웠던 경험을 떠올립니다. 자신의 행복했던 경험에 대해 15-20개 문장으로 적어 주십시오. 자신이 지금 쓴 글을 다른 사람이 읽는다면, 그때의 느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최근의 즐거웠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연구 2

1. 추상적 표상조건

우리는 가끔 어렸을 때 즐거웠던 경험을 떠올립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 세 가지 이상의 경험을 15-20개 문장 내외로 적어 주십시오. 자신이 지금 쓴 글을 다른 사람이 읽는다면, 자신이 왜 그때 행복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어린 시절의 즐거웠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 구체적 표상조건

우리는 가끔 어렸을 때의 즐거웠던 경험을 떠올립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즐거웠던 순간에 대해 세 가지 이상의 경험을 15-20개 문장으로 적어 주십시오. 자신이 지금 쓴 글을 다른 사람이 읽는다면,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왔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을 도왔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